



Deloitte in Media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제 31 호 | 2018.4.30

딜로이트 안진·서울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업무협약 체결(헤럴드경제, 4.9)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대표이사 이정희)은 서울시 '서울 핀테크랩'에 입주한 27 개 핀테크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과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딜로이트 안진 스타트업 자문 그룹은 이번 협약식을 시작으로 서울시와 상호 협력해 유망 핀테크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회계, 세무, 법률, 내부통제 및 각종 경영컨설팅 자문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나갈 계획이다. 핀테크 분야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 개발, 투자유치, 마케팅, 홍보, 해외진출 지원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딜로이트 안진은 서울 핀테크랩뿐만 아니라 향후 국내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의미 있는 협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국내외 스타트업, 기업, 정부기관 등과의 다양한 협업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있다.

김유석 딜로이트 안진 스타트업 자문그룹 리더는 “해외 진출을 통해 글로벌 사업역량을 확대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함으로써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한 생태계 구축에 일조하겠다”라고 밝혔다.

딜로이트 안진, '미국 세법 개정 영향' 세미나 개최(파이낸셜뉴스, 4.24)

딜로이트 글로벌 세무 전문가들 직접 연사로 나서 설명...미국 대상 투자 기업들 혜택 및 기회 기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24 일 오전 9 시 서울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 One IFC 빌딩 8 층 대회의실에서 '미국 세법 개정의 영향과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제투자기관 OFII 의 낸시 맥레논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국제 조세·가격이전 전문가 마이클 스테인살츠 딜로이트 세무 파트너, 존 트라움 딜로이트 세무 파트너 등 미국 세법 전문가들이 방한해 연사로 나섰다. 이들은 △정치·법률 및 규제 관점에서 본 미국의 투자환경 △국제조세 관점에서 본 미국 세법 개정의 개요 및 시사점 △미국 연방정부·주정부 관점에서 본 미국 세법 개정의 개요 및 시사점을 주제로 각각 강연했다. 미국은 지난해 12 월 1986 년 이후 31 년 만에 가장 큰 틀의 세법 개정을 단행했다.

권지원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대대적인 세법 개정안에 따른 파격 감세 정책에 따라 미국 소재 기업들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될 것"이라며 "글로벌 기업들은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감세 정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영 최적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딜로이트 안진, 부동산사업 강화(매일경제, 4.27)

컨설팅사 '토마스 컨설턴트' 인수

딜로이트 안진, 부동산사업 강화

컨설팅사 '토마스 컨설턴트' 인수

딜로이트 안진이 국내 회계법인 중 처음으로 사업 분석, 거래 자문, 중개, 입주사 유치 등 전 부동산 사업 영역을 아우르게 됐다. 회계법인 딜로이트 안진은 지난 25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 컨설팅 회사인 토마스 컨설턴트 한국법인을 인수했다고 26일 밝혔다. 토마스 컨설턴트는 백화점, 쇼핑몰 등 입지 선정, 입점 업체 선정·운영 등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세계적인 상업시설 컨설팅 전문업체다. 본사는 캐나다에 있으며, 딜로이트 안진은 정동섭 대표를 포함해 9명이 속한 토마스 컨설턴트 한국법인을 인수했다. 이번 인수로 딜로이트 안진 재무자문본부는 상업시설에 대한 전문 기획력을 확보하게 됐다.

은 "주요 입주사 유치가 가능해지면서 국내 회계법인으로는 처음으로 부동산 업무 전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 부동산 서비스 컨설팅업체로 거듭나게 됐다"며 "기존 서비스를 연계해 업무 영역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회계법인들에서는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서의 경쟁 격화로 상업시설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장 분석, 개발 전략 수립·운영, 리뉴얼 개발 전략 등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를 지원할 수 있는 컨설팅 전문 회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딜로이트 안진의 인수가 눈에 띄는 이유다. 토마스 컨설턴트는 신세계 스타필드 하남·고양점을 비롯해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 등 신세계그룹 핵심개발사업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검토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윤진호 기자

딜로이트 안진이 국내 회계법인 중 처음으로 사업 분석, 거래 자문, 중개, 입주사 유치 등 전 부동산 사업 영역을 아우르게 됐다. 회계법인 딜로이트 안진은 지난 25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 컨설팅 회사인 토마스 컨설턴트 한국법인을 인수했다. 토마스 컨설턴트는 백화점, 쇼핑몰 등 입지 선정, 입점 업체 선정·운영 등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세계적인 상업시설 컨설팅 전문업체다. 본사는 캐나다에 있으며, 딜로이트 안진은 정동섭 대표를 포함해 9 명이 속한 토마스 컨설턴트 한국법인을 인수했다. 이번 인수로 딜로이트 안진 재무자문본부는 상업시설에 대한 전문 기획력을 확보하게 됐다.

홍중성 딜로이트 안진 재무자문본부장은 "주요 입주사 유치가 가능해지면서 국내 회계법인으로는 처음으로 부동산 업무 전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 부동산 서비스 컨설팅업체로 거듭나게 됐다"며 "기존 서비스를 연계해 업무 영역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회계법인들에서는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서의 경쟁 격화로 상업시설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장 분석, 개발 전략 수립·운영, 리뉴얼 개발 전략 등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를 지원할 수 있는 컨설팅 전문 회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딜로이트 안진의 인수가 눈에 띄는 이유다.

토마스 컨설턴트는 신세계 스타필드 하남·고양점을 비롯해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 등 신세계그룹 복합개발사업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검토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딜로이트 안진, 국내 기관 유럽 부동산 투자 주선 나선다(마켓인사이트, 3.12)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국내 기관에게 유럽 부동산 투자 기회를 주선하는 업무에 본격 진출한다. 국내 기관투자가의 유럽 부동산 투자가 대폭 확대하는 가운데, 본업인 부동산 거래 재무자문을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려는 복안이다.

12일 부동산 금융업계에 따르면 딜로이트 안진은 지난 4월 7일 딜로이트 부동산 재무자문부분(Re FAS) 소속의 유럽 시장 담당자를 한국으로 불러들여 '유럽 부동산 투자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국내 기관과 자산운용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프랑스, 독일, 네델란드, 폴란드, 오스트리아, 스페인에서 부동산 재무자문을 담당하는 딜로이트 소속 각국 실무자가 시장 현황과 최근 이뤄진 거래에 대해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딜로이트 안진은 이날 자료집을 통해 실제 거래를 자문하고 있거나, 거래를 앞둔 30여건의 현지 부동산 투자건을 국내 투자자에게 소개했다. 세미나 후에는 이들과 각 시장 담당자와의 1대 1 미팅이 20여건 이뤄졌다.

Free News [유니콘]주거(11-1)기

[마켓인사이트]딜로이트안진, 국내 기관 유럽 부동산 투자 주선 나선다

유럽 부동산 관련 30여개 국내 기관 및 운용사에 소개 재무자문 넘어 거래 발굴, 주선, 자문까지 서비스 범주 확대 "신세계 150개국 26만명 근무하는 네트워크가 강점"

입력 2018-03-12 18:08 | 수정 2018-03-12 18:08

<이 기사는 03월12일(04:28) 자본시장의 해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국내 기관에게 유럽 부동산 투자 기회를 주선하는 업무에 본격 진출한다. 국내 기관투자가의 유럽 부동산 투자가 대폭 확대하는 가운데, 본업인 부동산 거래 재무자문을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려는 복안이다.

12일 부동산금융업계에 따르면 딜로이트안진은 지난 7일 딜로이트 부동산 재무자문부분(Re FAS) 소속의 유럽 시장 담당자를 한국으로 불러들여 '유럽 부동산 투자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국내 기관과 자산운용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프랑스, 독일, 네델란드, 폴란드, 오스트리아, 스페인에서 부동산 재무자문을 담당하는 딜로이트 소속 각국 실무자가 시장 현황과 최근 이뤄진 거래에 대해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딜로이트안진은 이날 자료집을 통해 실제 거래를 자문하고 있거나, 거래를 앞둔 30여건의 현지 부동산 투자건을 국내 투자자에게 소개했다. 세미나 후에는 이들과 각 시장 담당자와의 1대 1 미팅이 20여건 이뤄졌다.

딜로이트안진은 2016년 5명의 전담 인력으로 부동산투자전문(Re) 내 해외대상투자자문팀을 신설했다. 투자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유럽 부동산 거래 주선에 전폭 나서는 계획이며, 딜로이트안진 Re팀 부문은 삼성생명 부동산 부문 출신의 이철 현우가 이끌고 있다. 해외대상투자자문팀은 삼성생명 해외사업 부문 출신의 허상권 이사가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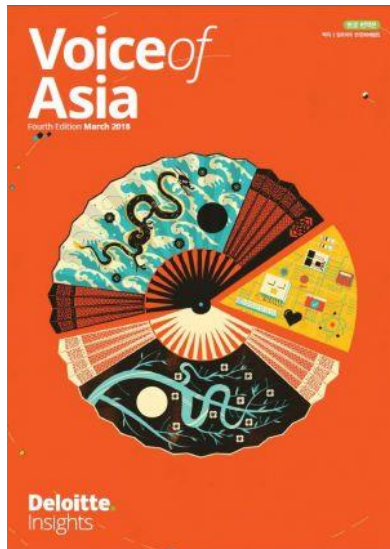
딜로이트안진이 유럽 부동산 시장을 첫 타깃으로 삼은 이유는 말쑥한 국내 기관의 해외 투자자가 유럽 부동산에 늘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 때문이다. 부동산 금융업계 관계자는 "최근 원화화 유동금 배분 투자할 때 받을 수 있는 리처미달(대출총액안 소액부 리처미달)에 의해 연 2%포인트에 달할 만큼 투자 여건이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현지에서 연 3%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건에 국내 투자자가 투자하면 5%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예기다. 연내 금리 인상이 예고된 한국과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의 대응을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유럽 부동산 시장이 주목받는 이유다.

국내 기관에게 투자권을 주선하는 프로퍼티지, 일부는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회사와 현지 네트워크를 갖춘 국내 증권사, 자산운용사들이 주도한다. 딜로이트안진 측은 연세 150개국에 26만여 명이 근무하는 거대한 딜로이트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이를 이상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딜로이트안진 관계자는 "딜로이트는 부동산 소유주인 수많은 기업과 자산운용사 등의 재무자문을 받고 있다"며 "장래에 있을 코퍼레이트 딜을 투자자에게 소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딜로이트안진은 투자 자산을 크고, 거래를 정사시킴, 재무자문도 함께하며 해 주는 '오픈소스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 부동산 자산운용사 대표는 "회계법인이 재무자문을 벗어나 실제 거래 주선

딜로이트 안진 "올해 한국 GDP 성장률 2.5~3%"(연합뉴스, 3.14)

아시아 경제전망 보고서 '보이스 오브 아시아' 발간



회계법인 딜로이트 안진은 14일 한국 경제가 올해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 2.5~3%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딜로이트 안진은 이날 발간한 아시아 경제전망 분석보고서 '보이스 오브 아시아'의 네 번째 국문판에서 "올해는 글로벌 경제 호조와 한중관계 개선 영향으로 그간 사드 보복으로 불거졌던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의 고용 및 사회복지 확대, 최저임금 인상, 금융당국의 신중한 금리인상, 원화 강세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안정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소비심리가 향상하면서 2.5~3% GDP 성장률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4월과 5월에 열릴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 화해모드가 경제 회복에 유효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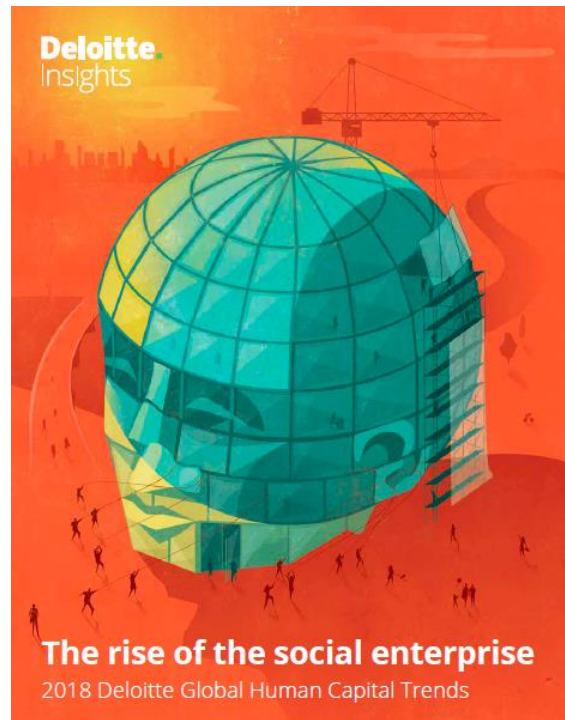
보고서는 또 중국의 경우 도·농간 부의 격차를 줄이는 재정정책을 통해 질적인 경제발전이 이뤄지고, 인도 역시 GDP 성장률이 6.8~6.9%로 아태지역 국가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딜로이트, '2018 글로벌 인적 자본 동향 보고서' 발표(헤럴드 경제, 4.3)

딜로이트 컨설팅(대표이사 정성일)은 딜로이트 글로벌이 발표한 2018 글로벌 인적 자본 동향 보고서를 인용해 최고 책임자(CxO)급 리더들이 인적자본 프로젝트 등 업무 수행 시 효율적인 협력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답변한 비율이 전체 조사인원 중 73% 이른다고 밝혔다. 인적자본 동향 보고서는 딜로이트 컨설팅의 인사조직 컨설팅(Human Capital Group) 부문에서 매년 발표해 온 것으로, 올해는 전 세계 140개국 1만 1000명에 이르는 인사 전문가 및 기업 리더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았다.

보고서는 또 인공지능, 자동차 등 신기술에 대한 필요성, 노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 등으로 CxO 리더십의 통합 또는 재배치가 필요하며, 증가하는 직원의 기대치와 실재 없는 첨단 기술 발전이 기업 인적자본 운영의 우선 순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리카 볼리니(Erica Volini) 미국 딜로이트 컨설팅 인적자본 리더는 “기업의 최고 재무책임자(CFO), 최고정보책임자(CIO), 최고 보안책임자(CSO) 등 리더십을 통합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유치하고,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것이 성장을 위한 차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딜로이트 안진, 더프라이스와 에코백 페인팅 나눔 캠페인 동참(연합뉴스, 4.17)



딜로이트 안진그룹(대표이사 이정희)은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을 위해 에코백 590 개를 직접 만들어 국제구호협력기구 더프라이스에 기부했다.

지난 2016년부터 나눔 활동 일환으로 참여하고 있는 딜로이트 안진 임직원들의 정성을 담아 색칠한 에코백은 가방이 없어 보자기나 비닐을 들고 다니는 동티모르 만레우 마을과 라오스 사이롬 유아부 어린이들에게 전달돼 즐거운 등·하굣길을 선물할 예정이다.

딜로이트 안진 김점표 대외협력본부장은 “에코백 색칠하기는 임직원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어 해마다 참여율이 높은 봉사활동을, 직원들이 가족들과 봉사활동을 함께하며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봉사자가 직접 만들어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더프라이스 캠페인은 어린이들의 위생과 교육 증진을 위해 진행되는 캠페인이다. 캠페인 키트 구매비에 포함된 후원금은 교육, 보건위생, 식수 사업에 사용되며, 봉사자가 완성한 물품들은 더프라이스 사업지로 전달된다.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a UK private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DTTL"), its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kr/about to learn more about our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This communication is for internal distribution and use only among personnel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Network"). None of the Deloitte Network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communication.

© 2018.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LLC